

서호인의 ‘소설처럼’



편의점 사람들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동네마다 편의점이 있다. 아니,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다. 1990년대 일종의 신사업으로 등장한 편의점은 최근까지 확장 일로였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로서 규모의 경제에 성공해 슈퍼마켓은 물론 구멍가게와 소형 마트까지 접수하였고, 이제는 그 숫자와 밀집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되면서 편의점도 그 활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2020년 기준 전국 편의점 숫자는 4만 개가 넘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하루면 배달이 완료되는 인터넷 물도 우후죽순 생겼다. 이렇듯 경쟁은 심해졌고, 인건비와 기타 비용은 상승하는 동시에 24시간 운영이라는 족쇄는 여전하니, 동네 장사라고 하여 마냥 편하고 안정적일 리가 없는 것이다.

김호연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의 주된 공간인 청파동 골목의 편의점 ‘올웨이즈’(ALWAYS)에도 편의점의 역사와 풍파는 비껴 가지 않는다. 편의점의 경영자는 영업숙 여사. 평생 교사로 일했고, 은퇴 후 편의점을 창업했다. 편의점으로 대단한 돈을 만지기도 어렵고, 자주 들고나는 아르바이트 인력과 갖가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소소하게 벌어지지만, 합리적이고 포용적이며 예상 가능한 태도로 편의점을 운영한다. 작은 편의점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생계와 사정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가게나 주인의 상황보다는 그보다 약자인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한다. 편의점도 주인의 성

정을 닮는지, 우리의 이웃을 따스하게 품는다. 작금의 편의점처럼 도시락과 컵라면을 먹을 수 있고, 몇몇 음료를 투 플러스 원에 팔지만, 지난날 슈퍼마켓처럼 오고 가는 사람들의 정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인생이 있다. 누군가는 공간이 정신을 지배한다는데,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정신이 공간을 바꾸는’ 셈이다.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바꾸는 정신의 두 번째 인물은 독고 씨다. 소설의 가장 주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독고 씨는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역의 노숙자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으며,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 영업숙 여사는 기만하고 담대한 경영자답게, 독고 씨의 우직한 호의와 친절에서 그의 잠재력을 급세 알아봤다. 독고 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변화를 동시에 일으킨다. 독고 씨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조건은 단 하나, 급주다.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받는 그에게 급주는 어디든 근무를 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을 터, 독고 씨는 이 약속을 철저히 지켜나. 술이 먹고 싶을 때는 편의점에 비치된 옥수수수염차를 마시면서, 옥수수수염차의 효능을 발견한다. 그리고 편의점의 사람들에게 옥수수수염차를 권한다. 힘을 때 마시라고. 대화할 때 마시라고. 마시고 잠시 쉬라고.

‘불편한 편의점’과 야간 아르바이트 독고 씨, 그가 권하는 옥수수수염차는 편의점을 둘러싼 사람들의 여러 긴장과 갈등을 어렵지 않게 이완시키고 해소한다. 현

실에서의 문제가 이렇듯 쉬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부재 혹은 소거가 다소 비현실적이거나 판타지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이 작품을 독해하게끔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안과 치유를 준다. 독고 씨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행동을 찾아, 그 행동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됨을 일깨운다.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가족과 충분하고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사귀할 때 사귀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는 것이다. 편의점의 동료와 손님과 이웃은 독고 씨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을 비로소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독고 씨다. 기억을 되찾고, 대화하고, 사귀하기.

편의점에 모인 사람은 전부 달랐다. 올곧고 바른 사람, 재치있고 섬세한 사람, 책임감 있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물론 약자에게 최선을 다해 진상인 사람, 질투하고 뒷말을 남기는 사람, 게으르고 고집불통인 사람도 있었다. 모두 다르기에 세상은 편하지 않고 불편할 것이다. 그들이 모이는 편의점 또한 편한 편의점이 아닌, 불편한 편의점이라니……. 제목이 주는 아이러니가 의미심장하다. 그 아이러니를 편의점이라는 소설 속 공간이 감춘다. 독고 씨를 비롯한 편의점의 인물이 해낸 것이다. 역시 정신을 지배하는 건 공간이 아니었다. 정신은, 그 공간의 사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시인〉

의료칼럼



이태 희
보라안과병원 원장

새 학기 시작으로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이 설레면서도 분주했던 3월. 등교 때 뭘 가방도 정리하고 새로 사귄 친구 생각에 들떠 개학을 맞이했지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상 등교하는 날은 손에 꼽혔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는 날이 많다. 특히 요즘 맛벌이 가정이 많은 만큼 아이 홀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격 수업이 끝난 후엔 스마트폰·TV·컴퓨터·게임 등으로 자연스레 시선을 옮겨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 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루 평균 45분, 고학년은 하루 평균 105분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단지 평균 사용 시간이고,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의 눈은 쉴 틈이 없는 셈이다. 이런 시기에 부모가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근시이다.

근시는 물체의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것으로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뚜렷하게 볼 수 없는 질환이다. 평소보다 아이가 전자기기 앞에 바짝 다가가 화면을 시청

집콕 시대, 우리 아이의 눈은 안전한가요?

하거나, 눈을 자주 깜빡 거린다면 근시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다만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근시는 가성 근시(가짜 근시)라고 하여, 가까운 곳을 오래 주시하면서 눈의 피로와 함께 찾아오는 일시적인 근시 현상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성 근시를 진성 근시로 착각하고 불필요하게 안경을 맞추는 경우 잘못된 도수의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인해 영구적인 근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성 근시는 일반적인 시력검사로 파악하기 어려워 조절 마비 안약을 점안한 후 굴절 교정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가성 근시인지 진성 근시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3~4세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약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약시란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고 시력표를 이용한 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이 두 줄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를 말한다. 원인으로 사시, 원시·난시·근시 등 굴절 이상이 심한 경우나 부동시가 있는 경우에 선행한 상을 보지 못해 정상적인 시력 발달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눈썹 찢림 등으로 인해 시력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쪽 눈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잘 보이는 쪽 눈으로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아이가 햇빛이나 형광등 아래에서 심하게 한쪽 눈을 찡그리거나, 물건을 볼 때 눈을 많이 찌푸리고 가늘게 보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약시를 의심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굴절 이상

으로 인한 약시라면 정밀검사 후 안경 착용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 또 사시가 원인이라면 안경 교정 및 사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시력이 좋은 눈을 가려 약시가 발생한 눈을 많이 쓰게 함으로써 시력이 발달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극을 주는 가림 치료도 병행해 볼 수 있다.

유아기는 육체적 성장과 더불어 지적 성장이 이뤄지는 시기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아이는 보고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시각 정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한다. 실제로 일상생활 정보 중 약 80%가 시각을 통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눈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어린이 시력은 초등학교 2~3학년인 만 8세 이전에 대부분 완성되고 이때 시력 발달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아이의 평생 교육과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력 저하는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 예방할 수 있는데, 1주일에 최소 2시간은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야외활동과 책이나 디지털기기를 볼 때 눈과의 거리를 30cm 떨어진 곳에서 유지하고, 50분간 근거리 활동을 했다면 10분은 휴식을 취해 주는 것이 좋다.

아이들의 신체 이상은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눈의 조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시력에도 적신호가 켜진 만큼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시력 발달 시기인 만 4세 이후부터는 연 2회 정도 안과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음으로써 아이의 소중한 눈 건강을 확인하고 지켜 주도록 하자.

인문도시와 창조도시, 문화도시

새기고 기록(人文)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도시는 인간의 몸과 주거 공간의 확장된 형태이다. 초현실주의 화가 앙드레 마송의 작품 ‘두개골의 도시’(Ville cranienne)는 두개골이 뇌조직 및 감각기관의 조절과 조정의 유기체로 기능하듯이 도시 역시 기억(특히 人敎)의 조절과 조정의 유기체이어야 함을 말해 준다.

인간의 기억을 담당하는 ‘뇌’와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을 보호하는 곳인 두개골(Cranium)의 변형은 대뇌 피질의 압박이나 뇌실질의 변형을 초래하여 결국 뇌기능 저하 혹은 마비를 유발한다. 앙드레 마송의 ‘두개골의 도시’는 도시 역시 인간의 기억(人敎)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호해야 할 새로운 기억을 새기고 기록하는 공간이자 장소임을 말해 준다. 두개골의 변형이 인간의 뇌 기능 저하와 마비를 초래하는 것처럼 ‘도시’의 변형(초고층 아파트 중심 도시) 역시 도시의 기능 저하와 마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작품 ‘도시의 파노라마’(Panoramas de la Ville)는 흩어져 있는 도시 기억의 퍼즐(人敎)들이 스스로 질서와 균형을 갖추며(임제감을 얻으며) 자리 잡아 가는 것을 보여 준다. 도시 속 인간의 흔적과 기억들이 스스로 질서와 균형을 갖추며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시의 구성 원리임을 말해 준다.

‘도시의 파노라마’는 회화에서 구상적·재현적인 요소를 일체 포기하고 대상(즉 도시)의 근원에 있는 질서와 균형을 구성 원리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시 역시 구상적·재현적 요소 즉 도시의 외관과 기능보다는 도시의 근원에 있는 질서와 균형을 구성 원리로 삼아야 함을 말해 주는 듯하다.

요즈음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이 인문(人文)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문도시라 함은 “시민들이 예술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인문 교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학습도시”를 지칭하며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민예술도시”를 말한다.

하지만 진정한 인문도시는 학습도시와 시민예술도시 외에도 이들의 토대가 되는 ‘창조도시’의 방향성을 지닐 때이다. 여기서 창조都市는 ‘도시가 보유한 역사와 문화(人敎)를 장소(텍스트 즉 人文) 가치로 온전히 체현하여 이를 새로운 도시의 활력으로 삼는’ 도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창조도시가 바로 문화도시이다.

우리 광주는 보유한 역사와 문화를 장소의 인문 가치로 온전히 체현하여 새로운 도시의 활력으로 삼는 창조 도시이자 문화도시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은 광주에 새겨진 인문(人敎)을 읽고 해독하여 이를 인문(人文)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社說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다양성 보장을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구조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선거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입지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는 그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기초의원을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세 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기초의원(시군구) 선거는 선거구당 두 명에서 네 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광역의 회(시도)가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약용하면서 제3 정당인 기초의회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591개로 절반을 훨씬 넘는 반면, 4

인 선거구는 27개에 불과해 양당 독점 구도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정치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도입해 다당제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특히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넓혀 광역의원 선거구와 똑같이 만들면 ‘생활밀착형 정치’라는 기초의회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1~2위 득표자뿐 아니라 후순위자들을 찍은 유권자들의 민의까지 반영할 수 있다.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토포리 자치에 반영해 거대 정당에 대한 견제 가능성에 하는 다당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앞다퉀 국민에게 정치 개혁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편법 운영 주차타워 지자체 감독 강화해야

도심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는데 도심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지어 놓고도 실제 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첨단 2차구로 불리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광주일보 취재팀의 현장 확인 결과 비교적 신도시에 속하는 이 지역에는 기계식 주차타워가 16곳에 설치됐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A건물은 구청에 준공 신고를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 14면을 확보했다가 승인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B건물도 차량 열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타워를 세웠지만 흉물로 방치돼 있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시설 면적 134㎡당 차량 한 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

해야 한다.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건물주들이 노면 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하면서 주차타워를 지어 놓고도 운영 과정의 인건비 부담과 고장을 이유로 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어서 관할 구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자들은 늘 돈이 될 드는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기계식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는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편법 운영을 막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건물 신축 때 지하 주차장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자치단체들은 공영 주차장 확보에도 더욱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가까이 두고 생각날 때마다 들춰 보는 그림책이 있다. 다비드 칼리와 세르주 블로크의 ‘나는 기다립니다’. 인간의 크고 작은 ‘기다림의 무게’를 실물 형태의 ‘붉은 끈’과 펜 그림으로 표현해 낸 책이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과 나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책은 깊은 울림을 준다. 다비드 칼리의 또 다른 책 ‘완두’와 함께 좋아하는 그림책이라 선물도 많이 했었다.

안녕달의 그림책 ‘수박 수영장’은 또 열 마나 사랑스러운가. 잘 익은 붉은 수박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세기에서 발견되는 100

해졌다. 올해 안데르센상 수상자로 이수지 작가가 선정된 것. 1956년 제정돼 격년제다 수여되는 안데르센상은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페페 롱스타킹’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할리와 초콜릿 공장’의 그림 작가 쾰린 블레이크, 앤서니 브라운 등이 수상한 상으로 한국은 수상자를 낸 세계 28번째 나라가 됐다.

마침 멋진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백서로 79-1)에서 진행 중인 ‘제비책방’전(27일까지)에 가면 국내외 ‘블로냐 라가치’ 수상작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100여 권이 넘는 그림책을 만날 수 있다. 전시된 책들은 한 권 한 권 뛰어난 ‘만들새’가 인상적이다. 비발디의 ‘사계’와 그림, 이야기를 결합한 ‘여름이 온다’ 등 이수지 작가의 대표작들도 전시 중이다.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은 그림책 전국이. ‘내 마음의 집’을 주제로 다양한 그림책을 만나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나만의 그림책’ 전시를 보다 보면,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고



류재환
전남대 불문과 교수
한국프랑스학회 회장

도시는 ‘인문(人敎)과 인문(人文)의 반영체(反映體)’라고 말한다. 도시의 정체성(역사와 이야기)을 이루는 토대가 도시에 각인된 인문(人敎)과 인문(人文)이기 때문이다. 인문(人敎)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자신의 저서 ‘파리, 19세기의 수도’에서 말했던 “거주한다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에서 ‘흔적’ 즉 인간 삶의 흔적(무늬)을 말하며, 인문(人文)은 인문(人敎)이 켜켜이 쌓여 이루어진 ‘인간의 변화와 그 기록’을 가리킨다.

과거 인간은 적대적인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주술적 의미의 인문(人敎)을 자신의 신체(문신)와 거주지(동굴벽화)에 새겼다. 이후 인간은 도시에 자신의 흔적을 새기고 기록하게 된다. 도시가 이제 인간의 ‘몸’이자 ‘동굴’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인간은 도시라는 새로운 ‘몸’과 ‘주거 공간’에 자신의 흔적 즉 인문(人敎)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